6개 시중은행 첫 상생금융지수 평가… 기업·우리은행 '우수'

동반위, 中企 대출 많은 은행 평가
올해 시범평가… 대상 확대 협의 중
231개 대·중견기업 결과도 발표
최우수 44곳, 매우 미흡 13곳 지정
온라인·방산 등 영역 확대 추진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90차 회의를 진행했다. 장인화 동반위원장(앞줄 왼쪽 7번째)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첫 상생금융지수 평가 결과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우수'를 받았다. 231개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실적 기준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44개사가 '최우수(S)', 69개사가 '우수(A)'를 각각 획득했다. '미흡(C)'은 24개사, '매우 미흡(D)'은 13개사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90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상위 6개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2025년 실적)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를 평가한다.

다만 올해는 시범평가로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이 1차 대상이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감독원의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와 동반위의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체감도 조사'(20점)를 합산하고 여기에 감점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다.

평가 결과 기업·우리은행이 우수 금융회사로 처음 선정됐다. 다만 시범평가라 나머지 4개사에 대한 결과는 공식 발표에서 제외했다.

장인화 동반성장위원장은 "향후 상생금융지수 평가 대상을 지방은행, 국책은행, 저축은행 등으로 넓힐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든든한 동반성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를 놓고 등급체계를 만들지는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총 5개 등급에서 '양호'를 없앴다. 대신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변별력을 강화했다.

올해 처음으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곳은 13곳으로 다스, 대방건설,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서울반도체,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에코플라스틱, 오티스엘리베이터,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모빌리티, KG모빌리티, TYM이 이름을 올렸다.

장인화 위원장은 "'매우미흡'에 대한 페널티 여부는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삼성전기, SK실트론, GS리테일, 현대오토에버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15년), SK텔레콤(14년), 현대트랜시스, KT, SK(이상 12년) 등 20개사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이 됐다.

롯데면세점, 코리아세븐,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 지수 평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현대트랜시스, 비제조업에서 이노션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삼성E&A(건설), 농심(식품), GS리테일(유통)이 부문별 1위를 기록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 실적 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로 나뉜다. 평균 62.58점인 실적 평가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고 득점을, SK인텔릭스가 전년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체감도 조사(평균 73.09점)에선 코리아세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교촌F&B가 전년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

장인화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 지수 평가는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향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면서 "동반성장의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동반성장 온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AI 데카콘 1곳, 유니콘 20곳 육성"

〈2030년까지〉

'딥 다이브 인투 2026'서 전략 발표
AI 초기 유니콘 전략적 발굴부터
AI 펀드, 공동 설계 프로젝트 등 지원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창업 국가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AI 데카콘 1개, AI 유니콘 20개사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유망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발굴부터 도약까지 전주기 지원 ▲혁신 성장 가속화 ▲글로벌 시장 도약 촉진 등 3개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와 함께 마련한 'AI 스타트업 Beyond 유니콘 육성 전략'을 11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딥테크 스타트업 기술 포럼'(딥 다이브 인투 2026)에서 발표했다.

이번 육성 전략은 스타트업 선별, 집중 지원 과정을 통해 글로벌화를 앞당기는데 핵심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딥 다이브 인투 2026'에서 참석자들과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를 위해 정부, 학교·연구계, 민간이 함께 유니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AI 초기 유니콘'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후보군을 구축할 방침이다. 투자, 고용 등에서 상위 20% 기업을 선별한다.

선별 기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면 유니콘 이상(Beyond)까지 장기간 단계별로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 단계 사업까지 연계되면 기업당 100억원 이상의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AI전략위와 공동으로 AI 유니콘 육성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하고 스타트업, 대기업,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성장펀드 등 AI 펀드도 공급한다.

국내 AI 산업·인프라 생태계 전체 단계를 수직 계열화해 스타트업 중심의 통합 실증 체계도 구축한다. 공동 설계 검증에도 나선다. AI 팹리스 스타트업·AI 솔루션 스타트업·수요기업을 '하나의 협력체'로 묶어서 공동 설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수요가 있는 분야별 대기업 등 제품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실증해 구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 고객이 돼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를 AI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1313억 규모'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범

중기부, 2000억 벤처펀드 조성 목표
최소 1개 이상 지역성장모펀드 조성
한국벤처투자, 전남광주시, 주요 출자자들은 운영위원회 구성
12월 자펀드 출자 사업 개시해 약 2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지역성장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인 1313억원이 전남·광주에서 본격 출범했다.

지역 벤처·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을 연결할 한국벤처투자 서남권 투자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남광주 순천시 국립순천대 체육관에서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13억원 상당의 지역 간 통합 모펀드로, 모태펀드가 750억원을 투자하고 전남광주시, 여수시,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순천대, 포스코 등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전북, 울산, 대전, 대구·경북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결성되는 지역성장펀드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조성 및 운영하는 지방 투자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최소 1개 이상 지역성장모펀드를 조성하기위해 올해 4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 전남광주시, 주요 출자자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자 분야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 자펀드 출자 사업을 개시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은 '서남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4곳은 투자·융자·보증을 연계하는 서남권 벤처금융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업할 방침이다.

또 부산의 동남권 투자센터 뒤를 이어 한국벤처투자 서남권 투자센터가 전남광주에 문을 열었다. 서남권 투자센터는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방 내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과 VC와의 투자 연계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승호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SHE 시스템 바탕 안전환경 활동 강화
위험성 평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안전과 환경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본 가치로 삼고 계열사별 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사업장 내 잠재 위험을 미리 찾아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 개선과 자원순환으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석유화학 계열사가 공동 운영하는 안전환경보건(SHE) 시스템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사업 특성에 맞춘 안전환경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정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아차사고를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가 프로세스를 개정해 기록과 모니터링 체계를 명확히 했다. 현장에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에어백, 스마트 안전모,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장비 등을 도입했고 작업 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안전점검회의(TBM) 활동의 표준과 교육 체계도 정비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비상 대응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화학 사고에 대비한 자체 훈련을 매월 진행한다. 신규 유해화학물질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현장 안전설비도 보완했다.

금호리조트는 전 사업장에서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공유하는 '아차사고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해 아시아나컨트리클럽(ACC)과 제주 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화순과 아산 사업장으로 인증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오·폐수 최종 방류구의 오염물질 조기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등 생산공정 전반의 환경 관리 수준을 끌어올렸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GS그룹, AIDC 사업 전략적 협업

AIDC 구축부터 철강기술·소재 공급

포스코가 GS그룹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초기부터 철강 소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미래 성장 시장 공략에 나선다.

포스코는 1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GS그룹과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 분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그룹은 사업 기획과 전력 공급, 설계·시공(GS건설), 액체냉각(GS칼텍스) 등 AIDC 구축과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포스코는 철강 기술력과 소재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건설 효율과 수익성 향상을 지원한다.


포스코와 GS그룹이 11일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희근 포스코 사장, 홍순기 GS그룹 부회장. /포스코

특히 포스코는 사업 초기부터 맞춤형 철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EVI(Early Vendor Involvement)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